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2월 21일(월) 총 4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시민정책 담당관실	담당자	• 시민참여팀장 최재필 ☎440-2416 • 담당자 조영희 ☎440-2418	
사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시민청원, 온라인 소통창구 역할 톡톡히 했다

- 2021년 총 2,130건 접수, 총 11만 6천 명 동의로 역대 최다 기록 -
- 루원시티 학교용지 확보 등 지역현안 해결 -
- 시민청원 인식조사 결과, 참여자 86% '시민의 시정참여 높였다' 호평 -

인천광역시가 21일,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출발한 시민과의 온라인 소통 창구 ‘시민청원’의 2021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12월부터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시민청원’은 지난해 총 2,130건 접수됐으며, 총 11만 6천 명의 동의로 최다를 기록했다.

* (2021년 청원현황) 총 2,130건 등록, 116,178명 공감

** (2020년 청원현황) 총 1,620건 등록, 79,117명 공감

*** (2019년 청원현황) 총 907건 등록, 84,046명 공감

지난해 성립된 23건의 청원에 시장과 부시장 등이 답변했으며, 미성립 청원 중 다수의 공감을 얻은 519건에 대해서도 부서답변을 시행했다.

사이트 방문자 수는 시민청원 사이트 개설 전 월평균 225명에서 현재

월평균 2만 9천여 명으로 130배 급증했다.

시민청원 통계 현황을 보면 청원 신청인의 72%가 20~40대로 나타났으며, 이 중 52%가 남성이었다.

각 분야별로 보면 지난해 상반기 청원은 △복지(33.3%) △교통(30.8%) △도시(건설) (13.9%)순이고, 공감 건수는 △도시(건설) (47.2%) △환경(안전) (19.5%) △교통(16.4%) 순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는 △교통(47.4%) △도시(건설) (20.1%) △복지(12.5%) 순이고, 공감 건수는 △도시(건설) (48.4%) △행정(22.2%) △교통(20.8%) 순으로 도시(건설) 분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시민청원이 지역현안 해결의 실마리가 된 경우도 있다.

40번째 성립 건인 「루원시티 상업3용지 학교용지 원안복원」 청원은 루원시티 상업3용지에 오피스텔 건축 계획으로 학교용지 확보와 초등학교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청원이 이어졌고, 민간 사업시행자의 동의가 없어 난항을 겪었으나 청원 이후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모색했고, 마침내 상업3용지 일부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이 현재 재공람·공고 중에 있다.

시민청원이 시의 권한밖에 있는 청원이지만 지역사회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창구 역할을 하기도 했다.

51번째 성립 건인 「인하대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관련」 청원은 시민청원 개설 이래 가장 많은 공감인 11,011명의 공감을 받은 청원으로

인하대가 지난 해 8월 일반재정지원대학 미선정 이후 지역 정치권 및 각계각층의 지지로 문제제기가 이어졌고, 이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돼 오는 5월, 교육부는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시민청원이 ‘시민의 시정참여와 시정관심을 높였다’는 시민청원 인식조사 결과도 나왔다.

지난 해 9월 인천시가 운영 중인 온라인 정책담론장 ‘토론 Talk Talk’을 통해 시민청원 인식조사를 한 결과 조사 참여자의 86%가 ‘시민청원은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높였다’고 답했으며, 85%는 ‘시민청원은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상승시켰다’고 응답했다.

이종우 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시정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청원답변을 통해 인천시의 정책방향과 사업 추진사항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8년 12월부터 2021년 말까지 온라인 시민청원 사이트 방문자수는 1,065,866명에 달하며, 총 4,781건의 청원이 등록되었고 304,353명의 시민이 청원 공감에 참여했다.

※ 답변영상은 ‘인천은 소통e가득’ 홈페이지 및 인천시 공식 유튜브 참조

※ 운영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은 소통e가득’ 홈페이지 참조
(소통현장→시민참여)

〈붙임〉 온라인 시민청원 관련 이미지

